

Bayer, 중국 PC 시장 “재패” 추구

Caojing 컴플렉스 대규모 확장 ... HDI · TDI · MDI 투자도 확대

Bayer이 중국 Shanghai의 Caojing 컴플렉스에 4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PC(Polycarbonate) 플랜트를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PC 시장공략에 나섰다.

세계규모의 Caojing 소재 PC 플랜트는 2006년 2/4분기부터 Bayer의 하이테크 플라스틱 제품인 Makrolon®을 생산하게 되며 Bayer는 시장여건에 따라 생산능력을 20만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akrolon®은 CD 및 DVD, 자동차 헤드라이트 렌즈, Glazing 및 Roofing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Bayer은 Caojing 소재 통합 PC 컴플렉스에 총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미 Polymer 생산설비를 건설하는데 18억달러를 투자했으며 몇몇 지역에서 건설허가를 받았다. 또 8억달러 투자규모의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이며 신생 독립기업(NewCo)에 약 5억달러를 투자했는데, 2005년 초까지 화학사업 및 Polymer 사업 일부를 주식에 상장시켜 새로운 이름으로 분리·독립할 계획이다.

Bayer은 Caojing 컴플렉스가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yer은 1882년 중국에 염료를 공급함으로써 중국 진출을 시작했으며 Bayer의 2002년 중국 매출이 약 11억 유로, 직원 2600명 이상에 달해 중국은 Bayer의 아시아 대상국 가운데 2위로 성장했다.

중국은 Bayer의 투자 요충지로서 중국에는 총 22개의 Bayer 지사가 있으며 그 가운데 15개 지점은 Bayer의 주력상품 및 수요비중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화학제품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Bayer은 장기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투자에 주력할 방침이며 Polymer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07년까지 아시아-태평양에서 신생독립기업인 Bayer Material Science의 매출비중을 18%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에서 Bayer Material Science의 매출비중은 앞으로 10년 안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Bayer은 PC 플랜트 외에 2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Polyisocyanate 플랜트를 건설하게 되면 Caojing 컴플렉스가 Bayer의 코팅원료 핵심 공급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003년 4월 생산능력 1만1500톤에 달하는 플랜트에서 Desmodur®N계열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Desmodur®L계열 제품의 원료인 Polyisocyanate 플랜트가 현재 건설되고 있다. 2004년 말 완공 예정으로 Bayer의 Caojing 소재 Desmodur®L계열 제품 생산능력은 1만1000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Bayer은 베이스 제품인 대규모 HDI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초기 생산능력은 3만톤, 완공시기는 2006년 말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총 5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생산한 원료들은 일반 산업, 자동차, 목재 및 가구용 고품질 PU 코팅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이외에 Bayer은 Mattress, Upholstered Seating 및 냉장고 단열재 등에 사용되는 PU Foam의 핵심 원료인 MDI(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및 TDI(Toluene Diisocyanate)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이다. Crude MDI 생산능력은 23만톤에 달하며 2008년 가동에 들어가고, TDI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16만톤으로 2009년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5/12>